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6.11.26

충남보훈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연구

성태규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tgsung@cni.re.kr

본 연구는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충남보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요약

- 보훈공원의 “보훈”의 범위를 전쟁을 넘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자의 범위로 확대해석하여, 나라사랑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호국교육사업과 체험사업은 주민생활영역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국교육은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홍예공원, 내포신도시 내외 시설과의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CONTENTS

< 요약 >

1. 충남 홍예공원 구상
2. 충남 보훈공원 계획
3. 전쟁기념과 사례조사
4. 호국 전시 및 교육의 범위
5.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안)
6. 결론 및 정책제언

1) 충남 홍예공원 계획

- 보훈공원은 홍예공원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공원 활성화는 홍예공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구상할 수 있음.
- 홍예공원은 내포신도시 행정타운과 용봉산 사이에 건립되고 있음.





- 흥례공원에는 보훈공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다목적운동장, 문화시설, 흥예동산, 흥예마당, 바람여울언덕, 충남도립도서관 등이 건설중에 있음

2) 충남 어린이 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 계획(안)

- 인성학습원은 도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하고, 양성 및 연수목적으로 유아교육지도자, 자격제도와 자원봉사 목적으로 시민생태대학을 부가적인 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은 5부분으로 구상되어 있음

구분	실내공간	실외공간
자연체험존	시민생태대학	야외교실 + 탐방로
문화예술존	문화예술창작실, 전시장, 목공소	재활용 정원, 에너지정원, 생물 다양성 정원, 야외전시장
자연가꿈존	실당·요리교실, 유기동물 돌봄관, 동물병원	텃밭, 논밭, 과수원, 동물농장, 생태연못
자연놀이존	실내놀이공간	자연놀이터, 모험(안전)놀이터, 야외공연장 및 다목적 광장
건강안전존	건강체험관, 에코카페	교통안전체험장, 다목적 광장

- 한국환경교육연구소의 충남형 인성학습원 기본구상(안)에 의하면 충남 인성학습원 자연놀이들은 5가지 테마로 구상되어 있음.
 - 문화-예술
 - 안전-건강
 - 자연놀이 : 아이답게 잘 놀며 놀이를 통한 자기이해
 - 자연체험 : 숲, 강, 모래 등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이 행복한 배움과 성장
 - 자연가꿈 : 텃밭과 정원활동을 통한 돌봄과 배려, 안전한 먹거리
-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내포신도시 지역, 마을, 학교와 연계하여 주변의 건물, 야외공간, 주차장을 연계하여 어린이안전교육과 프로그램이 추가될 것으로 구상되어 있음
- 실외체험을 위해서는 야외교실, 탐방로, 텃밭, 과수원, 농장, 자연놀이터, 광장(장터), 생태연못, 야외전시장, 주제 정원, 공연장 등을 활용할 것을 구상하고 있음.

1) 목적 및 조성방향

- 충남보훈공원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화합, 애국정신 고취로 요약됨
- 이를 위해 기억, 추모, 체험, 공유 등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2) 전시관

- 전시관/파빌리온은 5개의 주제로 구성됨.
 - 제1주제는 “역사의 시작”라는 주제로,
 - 제2주제는 “기억과 상처”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6.25전쟁, 베트남 참전, 훈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주제는 “생명의 존엄”
 - 제4주제는 “희생의 가치”
 - 제5주제는 “상생과 평화”의 주제로 구성되고 있음.
- 전시물은 정보검색기 3종과 전자방명록, 보훈지식 인터랙티브, 보훈교육을 위한 북한의 도발 인터랙티브, 보훈군가 VOD, 전쟁사연표 AR, 국가유공자1인의 삶, 전쟁의 참상VR로 예정되어 있음

3) 전시관 보완사항

- 전시관 자체 건립계획은 이미 전시컨텐츠 추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므로 본 과제에는 전시관자체의 컨텐츠 변경을 목적으로 보완사항을 논하지 않고, 전시관에서 부족한 사항을 보훈공원 혹은 흥례공원, 또는 더 넓은 공간적 범위 내에서의 보훈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충하기 위해 보완사항을 제기하고

자 함.

- 전시관의 “기억과 상처”에서 추모하고자 하는 대상은 일제강점기, 6.25, 베트남전 참전 보훈자임. 보훈의 주요 시기를 세 시기로 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고양해야할 대상이 줄어들었음.
 - 충남을 포함한 우리 나라의 보훈은 고려시대의 항몽항쟁,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대한 항쟁, 근대 항일독립운동, 6.25전쟁 등을 포함해야 함.
 - 전쟁기념관(서울)에서 “전쟁역사놀이”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시기도 ①삼국~고려(대외항쟁), ②조선(임진왜란), ③근대(항일무장 독립전쟁), ④현대사(6.25전쟁)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전시관의 내용이 구상되어 변경될 수 없다면, 지역에 있는 항몽, 임진왜란/병자호란과 관련된 애국정신도 다른 방법(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해 고양될 필요가 있음.

전쟁기념관 사례조사 ◀

03

- 전쟁기념관(서울)은 전시, 교육,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 가운데 교육, 행사 등의 내용, 그리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교육프로그램

- 전쟁기념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2016년 11월 24일 기준 예약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토요일가족 만들기 체험의 일부 프로그램에 3~5명에 불과함
 - 토요일가족 만들기 체험도 예약자가 미달되어 폐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전쟁기념관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인구만 해도 최소 1000만명의 방문객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약된 교육프로그램은 “토요일가족 만들기 체험”에 일부 프로그램에 불과함.

구분	프로그램명	예약 여부
창의체험	-1950년 우리 동네 이야기 -별별영웅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기억	X
토요일가족 만들기 체험	-하늘 그리고 우주 -조선의 비밀 신기전 -해상의 탱크 거북선 -응답하라! 신호등 -최종별기 활 -우리의 나래 비거	○
북한실상 바로 알기	-지금, 북한에서는 -퀴즈로 배우는 오늘의 북한	X
초중등 단체, 가족 대상	-참수리호와 함께 떠나는 북한이야기 -특명! 전쟁역사 속 숨은 영웅을 찾아라 -청소년 역사탐방	X

○ 시사점

- 전쟁박물관(서울)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발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임. 전쟁박물관보다 충남 보훈공원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더욱 자발적으로 보훈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보훈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 초중고학생등을 대상으로 단체별 예약을 통해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단순히 “보훈”이라는 소재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소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충남 홍예공원의 경우, 어린이인성학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문화행사 프로그램

○ 전쟁기념관에서는 2016년 다음과 같은 문화행사를 실시하였음.

- 문화충전나들이는 음악회(전자바이올린, 팬플룻 등) 태권도 시범, 벼룩시장, 대형벽화 완성 등을 내용으로 함
- 버스킹공연은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실시함

대상	문화행사명
관람객, 일반 시민, 업체	-가을 문화충전나들이 -사진 공모 -어린이날 문화축제 -버스킹공연 -슬로건 공모 -송년 음악회(2015년)
초중고생	-전국학생 나라사랑 평화사랑 글짓기 공모
유치원, 초등생	-현충일 글짓기·그림대회 개최

○ 시사점

- 충남 보훈공원의 목적을 보훈에 국한하지 말고, “공동체 의식, 주민화합” 등으로 확장한다면, 문화행사도 활성화방안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전쟁기념관 프로그램별 이용자수를 전쟁기념관의 협조를 얻어 추후에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호국 전시 및 교육의 범위

04

-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유공자 대상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보훈공원의 “보훈”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하면 호국교육의 인적 대상은 군인, 경찰, 기타 재해사고시 희생당한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하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져 4.19혁명, 국가사회발전까지 포함됨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재 보훈관 전시실에서 설정한 호국의 시대적 범위(일제 강점기, 6.25, 베트남전 참전)는 4.19혁명, 그리고 국가사회발전과 재해 극복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보훈관은 전쟁기념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법률에 의한 보훈,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이상의 성격을 지녀야 함
 - 향후 나라사랑 교육의 범위와 대상도 전쟁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한 다른 영역까지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충남보훈공원 준공을 계기로 현장교육사업,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훈체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건과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가능한 영역 내에서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가능한 사업을 제안함.

1) 여건

- 충남보훈공원은 애국광장, 보훈관, 충훈탑, 보훈가족공원, 보훈의 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시시설인 보훈관은 구상이 끝난(?) 단계이므로 현장교육, 체험을 보훈관에서 실시할 공간과 시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교육, 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야외와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함
- 홍예공원에는 보훈공원, 어린이인성학습원, 문화시설, 2곳의 연못, 보건환경연구원, 관리사무소, 다목적운동장, 홍예마당, 홍예동산, 충남 독립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뒤로는 용봉산이 위치하고 있음
 - 내포신도시 안에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등의 연계 자원이 있음
 - 내포신도시 밖에는 홍성 등지에 보훈관련 역사유적이 있음
 - 따라서 보훈공원의 연계사업은 1차적으로 홍예공원과의 연계를, 2차적으로 내포신도시내 기관·시설과의 연계, 3차적으로 내포신도시 밖의 유적지를 통해 모색될 수 있음.

2) 추진방향

- 보훈 관련 교육사업과 체험사업은 단독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호국, 나라사랑”이라는 한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민화합”, “휴식”의 영역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이 필요함
- 교육사업은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흥례공원내 적당히 교육을 실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흥례공원내에서는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사업은 보훈관에 전시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6.25 전쟁의 유적지 뿐만 아니라 고려항몽, 임진왜란 등과 관련된 도내 유적지에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교육의 주된 대상자는 학생이 될 것이며, 동원에 의한 현장교육이 될 수 밖에 없어 그 추진 가능성과 “호국정신 함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장 교육사업”은 전적지 등 현장에서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해됨. 우수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현장 교육사업을 추진함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충남도내 보훈관련 시민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6.25 참전유공자회 등이 있음.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보훈대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교육사업과의 연계점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내포신도시 주변에 호국교육을 실시할 항일·6.25전적지가 없기 때문에 현장교육의 추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교육사업’은 추진하되, “현장교육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보훈공원을 단독으로만 활용하는 사업구상에는 한계가 있음
 - 보훈공원은 보훈관, 충훈탑, 보훈가족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문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재 보훈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보훈관 전시·교육사업 밖에 없음

- 따라서 1차적으로는 보훈공원, 2차적으로는 흥예공원, 3차적으로는 내포신도시 내외 시설과의 연계 추진을 고려해야 함

3) 프로그램(안)

- 문화의 날(음악회) 행사
 - 흥예공원 문화시설 혹은 도청 문예회관을 이용하여 예컨대 현충일에 나라사랑 음악회, 혹은 가을에는 (가칭)가을맞이 음악회 등을 주민을 대상으로 보훈관과 연계하여 개최
- 아나바다시장 개최
 - 보훈공원내 아나바다시장(벼룩시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훈관과 연계
- “나라사랑 싱어롱(sing along) 캠프”(초중고생 대상)
 - 충훈탑 앞 잔디 광장, 보훈관 옥상, 흥예공원내 흥예마당 등 “나라사랑 싱어롱(sing along) 캠프” 운영(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운동장에서 1박2일 캠프를 실시하고 있음)
 - 교육청과 연계하여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공동체감, 협력심 등을 기르기 위해 1박2일 텐트생활 행사를 추진
 - 1박2일 프로그램으로 보훈관 관람, 나라사랑 강연, 용봉산 극기 산행, 다목적 운동장에서의 운동 행사, 야간 sing along 캠프 운영 등을 추진
- 나라사랑 버스킹 공연
 - 흥예공원내 야외공연장, 연못주변을 활용하여 거리 아티스트 공연 실시
 - 버스킹 공연 관람객들을 보훈관 관람으로 유도
-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과의 연계 사업
 - 인성학습원 방문 어린이의 나라사랑 교육코스 보훈관 활용(어린이 대상)
 - 인성학습원 텃밭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보훈관 관람객 대상)
- 충남도립도서관의 연계 사업
 - 보훈관 방문객 대상(주로 초중고생) 도서관내 공간에서 호국 강연, 창작 활동 실시

- (가칭)충남인권센터와 연계하여 도서관 내에서 인권교육 실시(초중고생, 보훈관 단체관람객 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혹은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의 연계 사업
 - 보훈관 방문객 대상(주로 초중고생) 생태·환경교육 실시
- 충남도의회 연계 사업
 - 보훈관 방문객 대상(주로 초중고생)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주민자치·민주주의 교육 실시
- 용봉산등산 원점회귀 시설 구축
 - 외지에서 주말에 용봉산을 찾는 등산객이 홍예공원에서 출발해서 등산 후 홍예공원으로 편히 원점 회귀할 수 있는 주차시설 등을 마련
 - 외지 등산객의 보훈관 관람을 유도

결론 및 정책제언 ◀

06

- 보훈공원의 “보훈”의 범위를 전쟁을 넘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자의 범위로 확대해석하여, 나라사랑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호국교육사업과 체험사업은 주민생활영역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국교육은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홍예공원, 내포신도시 내외 시설과의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